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필요성·가치 국가도 인정

국토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곳 선정

정부 3년간 1천178억 지원…추진 속도

전남도가 추진해 온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통해 국가로부터 정책적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1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2025년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서 신청한 7개 사업이 모두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1천178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7개 사업은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진도군(주거 단지 속 청년의 희망), 고흥군(복합문화센터를 품은 아파트), 신안군(도서관과 가족센터를 품은 아파트), 영암군(고령자 복지주택과 공존하는 아파트), 곡성군(수영장과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강진군(스포츠 테마존을 품은 아파트), 장흥군(숲을 품은 아파트)이다.

이번 성과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 건설형 방식으로 기획한 전남형 만원주택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실효적 주거정책 모델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및 인구 유

출이라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에 정면 대응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상 군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치며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다.

공모 서류와 발표 자료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와 군이 역할을 분담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도는 총 530호 규모의 전남형 만원주택을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총사업비 2천157억원 중 국비와 응자가 평가된다.

포함되면서 도비 부담은 당초 계획의 약 4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고, 평수도 넓게 공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생활 접근성이 높은 ‘슬세권’(슬리퍼 차림과 같은 편한 복장으로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뜻하는 신조어) 입지를 선정하고, 아이 양육을 고려해 33평 형태 넓은 면적으로 설계하는 등 실제 정부 여건을 종합 고려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대상 지역을 9개군까지 늘려 공급 규모를 최대 1천280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도 총 2천908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형 만원주택이 청년층의 욕구와 정부 정책 기조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결과”라며 “대규모 국비를 확보한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전남형 주거 모델이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문인 청장, 8일 사퇴

광주시장 출마 채비

6·3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오는 8일 구청장을 사임한다.

1일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북구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은 사임 예정일 최소 1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 청장은 사임 당일 구청에서 퇴임식을 가진 뒤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청장은 오는 18일 오후 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술관련 출신인 문인 북구청장은 행정자치부와 광주시 행정부시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민선 7·8기 북구 구정을 이끌었다.

/윤찬웅 기자



새해 첫 날 해맞이 2026년 별오년 붉은 말의 해 새해 첫 태양이 떠오른 1일 광주 남구 월산근린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일출을 바라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전남, 말 지명 전국 최다

전국 820여곳 중 216곳 보유

전남도는 1일 “2026년 별오년(丙午年) 붉은 말띠 해를 맞아 전국에 고시된 지명 10만여개를 분석한 결과, 말 관련 지명 820여곳 가운데 전남이 216곳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십이지 가운데 말은 일곱 번째 동물로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를 나타내며 씩씩하고 역동적인 기상을 상징한다. 불교에서는 죽은 이의 영혼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진다.

전남 지역 말 지명은 마을이 1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섬 44곳, 산 23곳 등의 순이다. 시·군 별로는 신안군이 32곳, 진도군·완도군·해남군이 각각 14곳으로 뒤를 이었다. 말 지명이 가장 적은 곳은 곡성군(3곳)이었다.

/양시원 기자

광주시, ‘백운-매곡 BRT’ 올해 설계 착수

국비 7억5천만원 확보…교통체계 전환

대규모 개발 광천권역 교통 대책 속도

광주시가 대규모 도시 개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광천권역에 ‘백운-매곡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361억원을 투입해 백운광장에서 광주공고까지 8.67km를 오가는 ‘백운-매곡 BRT’를 도입, 대중교통 중심 교통 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

특히 올해 국비 7억5천만원을 확보, BRT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광천재개발, 신세계백화점 확장, 더

현대 광주 개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광천권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제1차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에 백운광장(옛 대동고)에서 능성역, 광천사거리, 경신여고를 거쳐 광주공고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8.67km의 ‘백운-매곡 BRT’ 노선을 반영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BRT 기본구상과 구축방안 등을 검토·보완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BRT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속도와

정시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용역 검토 결과에 따르면 버스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3.5km에서 21.4km로 약 58.5%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이용 수요도 2028년 기준 BRT 미도입시 하루 2만8천126명에서 도입시 3만3천209명으로 약 18.1% 증가해 광천권역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전환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호 광역교통과장은 “백운-매곡 BRT 구축은 도심 남북축 대중교통 체계 전환의 핵심 사업”이라며 “국비가 확보된 만큼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smart
KPX
전력거래소
KOREA POWER EXCHANGE

전력에 관한 모든 것,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 바람과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풍요롭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력에 대한 모든 것은 이곳에서, 한국전력거래소

